

# [탄원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한 이주노동자집단폭행사건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수신 : 수원지방검찰청장

참조 : 배성효 검사

지난 6월 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은 너무나 부끄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노동자가 용기를 내어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한 언론사에 의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사회에서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중국인 노동자 유00씨는 너무나도 힘든 외국인보호소 생활을 견디다 못해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검찰조사가 아직 초기단계인 상태이고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가장 유력한 증인인 피해자 본인이 출국하도록 귀청에서 쉽게 허가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큼니다. 범죄피해자가 힘든 보호소생활 때문에 출국하도록 내버려두기 보다는 법무부에 보호해제를 건의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본인이 출국해버림으로써 유야무야되어버린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만은 다른 비슷한 사건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등록이주민(소위 불법체류자)이라는 이유만으로 짐승처럼 취급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번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피해자 유00씨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재판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재입국과 체류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경기이주공대위

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경기이주공대위